남조선을 황폐화하는 미제는 물러가라!

활살

3 -MAY 2 6
Copy ____ 1959

1958년 (92)

7월호

최 영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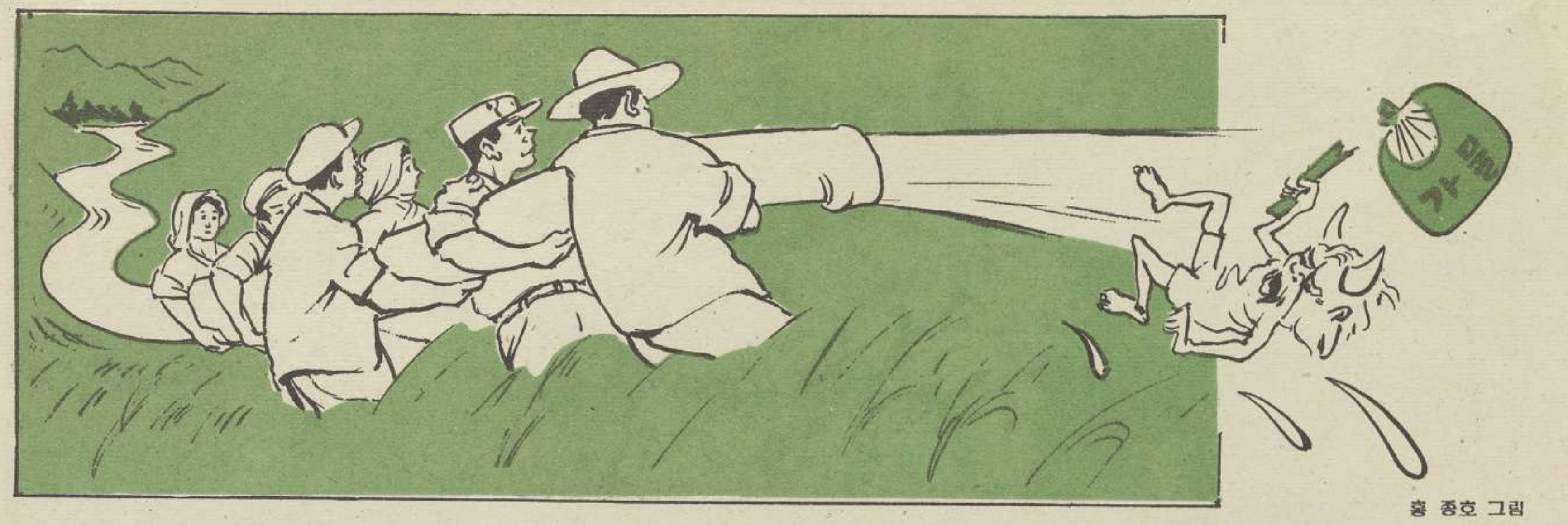
불패의 력량 앞에서

조 명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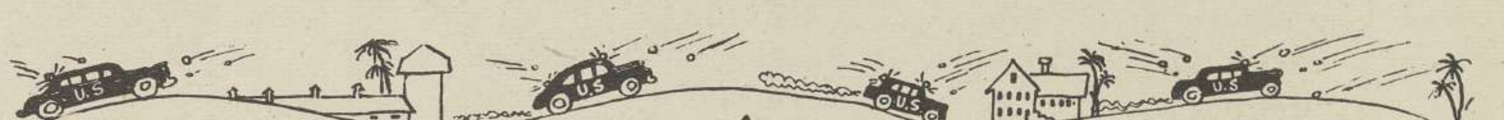
판이한 두 계획

최 영근 그림

자연을 정복하고 가물을 이겨 냈다



홍 종호 그림



미국 부대통령 닉손이 쓴 <남미주 기행> 중에서

로 철

4월 27일 뉴욕에서

방금 월가에서 지시를 받고 오는 길이다. 요새 남미주에서 공기가 험악하여지는 것 같으니 좀 가서 잘 설유하고 오라는 것이다. 하기는 재미 난 끝에 범 난다고 자그만치 해마다 10억 딸라 이상씩 차곡차곡 따왔으니까 이 대 아메리카의 뒤뜰악이 최근 웅성거리기 시작한 것만 사실이다. 그러나 어찌하랴! 그것 없이는 그렇지 않아도 요새 밑바닥까지 뒤흔들리고 있는 우리 경제가 더 몰골 없는 형편에 빠지게 될텐데… 어틀어틀하다간 남미주에서도, 1949년 중국에서와 같이 우리 미국의 만회할 수 없는 대참패가 재연될지도 모른다. 그렇게만 되는 날이면 월가 주인들이 얼마나 노하실 것이며 또한 이 내 정치 생명도 끝장날 판이다. 어서 가보아야 겠다. 이 닉슨의 혀가 비록 뼈는 없지만 그까짓 몽매한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뼈쯤 못 부수어 놓겠는가,

3월 28일,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이게 어이 된 판국이냐? 그래 적어도 미국의 부대통령이 출차하셨는데 환영 나온 사람 수가 이다지도 적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리고 방금 상공 회의소가 베픈 연회에서 <미국 자본은 깨끗한 자본이>라는 나의 연설에 대해서 그 소장인지 송장인지 하는 작자가 무에라고 답사했다? <미국이 정해준 상품 가격은 불합리하다>라구? 그야 당연하지 않는가 너희들이 밑져야 미국에 리속이 생긴다는 것쯤야 이건 <상업 도덕>의 초보 지식이 아닌가,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서 함구무언하고 얼버무려 넘기려고 했더니만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로씨야에 양모와 육류를 팔겠다>고 은근히 주먹을 쳐드는데 아마 내 생전에 이런 <환영 연회>는 처음인것 같다.

이게 무슨 불길한 징조는 아닌가?

5월 3일 아르헨친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아니야 이것은 날조야, 공산주의자들의 음모야! 글쎄 신문들은 내가 오늘 이 나라 대통령 프랍제스의 선서식에 두 시간이나 늦게 참가한 것을 대서특필로 풍자하고 있지만 이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 아니란 말야, 지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침에 호텔 문을 나서자마자 구름떼같이 수다한 로동자 학생들이 길을 막고 서서 <왜 부라질 대통령 바르가스를 자살케 하였는가> <누가 과테말라의 합법적 정부를 무력으로 뒤집어 엎었는가?>하고 고함을 치며 달려들지 않는가? 그야 우리 정부가 월가 주인들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지 내 책임이란 말인가? 그래서 진땀을 빼던 끝에 하는 수 없이 <그것은 미국의 과오이며 그러나 앞으로도 그런 과오는 또 있을 수 있다>고 우선 발뺌을 해 놓고서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는 선거를 통하여 미국파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독립하지 않을데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가?>하고 설유하려 들었더니 뜻 밖에도 광장이 떠나갈듯 한 조소'소리와 함께 <닉슨은 돌아가라!>라는 웨침이 터져 나오는게 어찌나 귀청이 터질듯이 드셌던지 지금까지 왕왕거리기만하고 잘 들리지를 않는다. 자 그래도 지각하게 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5월 8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오늘 이 날을 나는 영원토록 잊지 못할 것이다. ≪대자유 세계≫를 령도하고 있는 미국의 부대통령이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를 대인물이)아니 빽주에 그것도 네거리 복판에서 모두매를 얻어 맞다니!

사건은 이렇게 발생하였다. 오늘 아침 나는 센트마그스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되여 있었다. 그런데 학교 피문에 이르자 수 천명 학생들이 막아서서 돌맹이요, 파나나 껍질이요, 쓰레기를 종이에 싸가지고 그야말로 비'발치듯 마주 던지지 않는가! 그 통에 나의 부관 재크 (오 하느님 아버지시여, 그에게 복 많이많이 내려 주소서)는 이 한대가 부러지고 나는 목을 다쳤으니 이게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5월 9일 에쿠아도르 수도 키토에서

나는 하는 수 없이 학생들과 로동자들을 방문할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다. 월가의 돈 주머니를 위해서 생명까지 잃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5월 11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친애하는 나의 처는 한시 바삐 집으로 돌아 가자고 조르기만 한다. 심지어 콜롬비아 사람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까지 ≪여보 저 〃닉슨을 타도하라!〃라는 군중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나는 이러다간 정말 말라 죽을것 같아요≫하고 훌쩍거린다. 참 녀자들 소견이란 바늘 구멍이거든. 아직 베네주엘라 방문이 남아 있지 않는가. 용기를 내야 해.

5월 13일 베네주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오늘 벌어졌던 일을 총화하여 볼 때 아직까지 내가 남미주에서 받은 모든 봉변은 그래도 상팔자라 할 것이다. 만일 내가 부대통령 자리에 억증이 난 순간이 있었다면 바로 오늘을 두고 말하여야 하겠다. 하느님이 보호만 안해 주셨던들 오늘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이 되였을지도 모른다.

오늘 일을 대충 추려 본다면 아침에 비행기에서 내리려니까 환영곡은 들리지 않는데 웬 흰 기'발이 먼저 눈에 띄였다. 무엇인가 하고 바라 보니 아이크, 하느님 맙시사! ≪닉슨이여 붙잡지는 않을 터이니 어서 돌아 가거라≫라고 큼직큼직이 씌여 있지 않는가. 해마다 이 나라에서 3억 딸라를 짜내간 것을 분풀이하려누나 하고 눈을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를가, 수 천명 군중이 눈을 부릅뜨고 내가 내려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 온 몸에 소름이 일시에 돋는 것을 참아 가면서 자동차에로 달려가려는데, 우박 쏟아지듯 날아 온다는게 모두 닭알, 빈 통조림통, 썩은 배, 가래침 사태다. 삽시에 나의 몸은 뉴욕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의 모양으로 되여 버렸는데 더 가슴 아픈 노릇은 사랑하는 처가 당한 재난이였다. 청년들이 달려 들어서 그의 팔소매를 직씬 붙여 잡고 ≪리틀 룩크에 대하여 말 좀 해 보우!≫ ≪리틀 룩크의 흑인 아동들 형편은 어떤가≫하고 고함 지르고 조롱도 한다. 나의 처는 혼비백산했으나 그래도 하느님이 보살펴 주신 덕분에 이윽고 진정을 하여 지어는 얼굴에 웃음까지 띄워 보였으니 참 나는 그의 용감성에 대하여 오직 경의를 표할 따름이다.

그러나 재난은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였다. 비행장에서 려관까지 가는 행길 량옆에 환영 군중이 장사진을 이루었는데 그들이 모두 손으로 던진다는 것은 돌맹이, 장작 부스레기, 가지각색 썩은 음식 등속 뿐이요, 입으로 뱉는 것은 가래침과 ≪닉슨은 돌아 가라!≫ ≪남미는 미국의 간섭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과테말라를 잊지 않고 있다!≫는 고함 뿐이라 승용차가 만신창이 된 것은 고사하고 나의 통역관 화스트중좌와 이 나라 외상은 입까지 터졌고, 듣는 바에 의하면 내가 오늘 들려 보려던 모든 곳에 군중들이 꽉 들어차서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모든 공식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미국 대사관에로 차를 몰라고 명령할 수 밖에 없었다.

오직 남은 것은 래일 오전 10시 이 불붙는 땅에서 뺑소니칠 궁리 뿐이다. 그 때까지 하느님 아버지시여, 불상한 이 아들을 보살펴 주소서. 아멘.

5월 14일 카라카스에서.

이제 10분만 지나면 워싱톤 행 비행기가 떠나게 된다. 50명의 헌병, 수 십명의 사복 형사가 내 주위를 엄쌓아 있었고 아이젠하워가 49대의 비행기로 실어 보내준 1천명의 락하산병과 특전대원이 여기서 멀지 않은 군사 기지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덜레스는 내가 당하게 된 봉변들을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로 선전하라고 신문들을 동원시켰다. 그런데도 도모지 안심이 안 되고 속이 두근거리기만 하는 것은 왜 그럴가?

이 시대가 동풍이 서풍을 압도하는 시대라고 인민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 뜨거운 바람 때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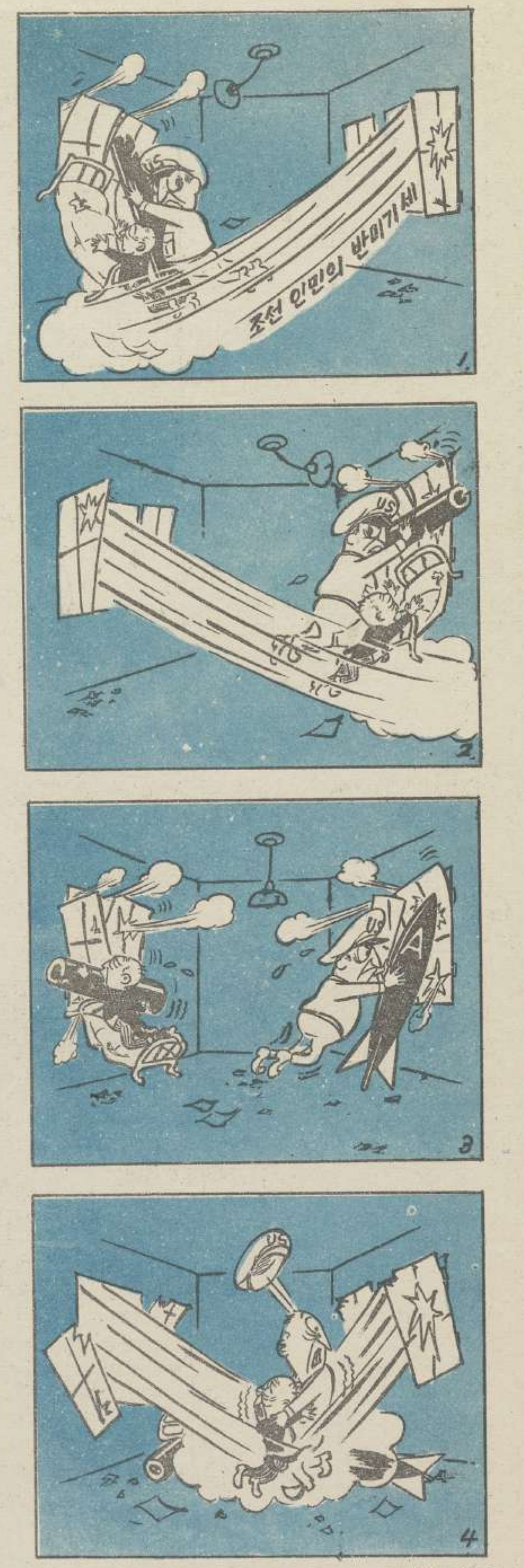
* 리틀 룩크—미국의 도시. 작년에 여기에서 흑인들을 박해하는 대중적 린치가 있었다.

"선거후" 소동

백 인균 그림

선거에서 의석수의 3분의2 (헌법 개정에 필요한 수)를 얻지 못한 리승만 도배는 선거후 야당및 무소속 당선자들을 〈선거사범〉의로 걸어 생억지로 이들의 〈당선무효〉를 조작함으로서 야당의 석수를 깎아 내려고 발광하고 있다

더는 막을 수 없다



원 광수 그림

《선거》 이후

류 계환

〈자유당〉 중앙 본부에서는 벌써 여러 차례 구수 협의가 거듭되여 왔다. 론의'거리로 된 것은 〈3분의 2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른바 〈수학〉에 관한 문제였다.

덩치가 큰 중년 〈신사〉들이 이마를 맞쪼면서 〈수학〉풀이를 하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다.

리 승만이가 죽으면 (그는 금년에 여든 세번째 생일을 치루었다) 《부통령》 장면이가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지금까지 틀어쥐고 있는 모든 특권도 〈민주당〉측으로 넘어 갈 것이 분명하다. 요는 리 승만이가 죽어도 〈민주당〉에 실권을 넘겨 주지 말아야겠는데 그러자면 〈부통령〉의 〈대통령〉 계승권을 규정한 현행 〈헌법〉을 고쳐야 한다. 고치자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필요하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1954년 11월에 〈자유당〉이 국회에서 리 승만의 종신 〈대통령〉을 보장키 위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에도 3분의 2 다수표를 못받아 부결되였지만 그래도 그때는 모자라는 득표 수를 〈4사5입〉의 생억지라도 써서 우겨댈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설흔석이나 모자라니 이대로는 〈국회〉에서 〈4사5입〉도 못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궁리 끝에 고안해 낸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였다.

즉 첫째로는 우선 당선된 27명의 무소속 〈의원〉들 중에서 좀 만만한 자들을 돈과 권력으로 매수해서 한 열댓명만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국회〉내 〈자유당 의원〉 수를 141석 정도로 늘쿠자는 것이였고 다음으로는 나머지 무소속과 〈민주당〉에서 〈당선〉된 〈의원〉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걸어 넣고 《당선 무효》를 만들어 65명 정도로 떨구자는 것이였다. 이렇게 하면 〈국회〉내의 〈자유당〉 의석 수는 3분의 2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당〉의 이 〈실천 수학〉은 그것을 푸는 과정에서 적지 않게 〈오차〉가 생겼다. 술과 뢰물과 〈지위〉를 미끼로 한 매수의 덕분으로 11명의 무소속 당선 〈의원〉들을 자기 편에 끌어 들일 수는 있었으나 반대파 〈당선자〉에 대한 당선 무효 공작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반작용을 일으켜 사태를 더 복잡하게만 만들었던 것이다.

〈자유당〉은 〈선거 사범 처리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선거 후 10일 동안에 22명의 야당파 및 무소속 당선자를 〈선거 사범〉 (선거법 위반죄)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그러자 〈민주당〉은 〈선거 사후 처리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협잡'군은 바로 네놈이 아니냐?〉고 맞받아 나오면서 무수한 〈자유당 당선자〉를 걸어 맞소송질을 하면서 반격해 나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자만 가지고는 〈자유당〉에 대항할 수 없는 야당측에서는 〈고발 전술〉에다 〈폭로 전술〉까지 배합시켜 〈자유당〉의 전횡과 협잡 행위를 계속 들어 내면서 기왕 문제가 제기되였으니 만큼 사리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임기가 거의 끝나게 된 3대 〈국회〉의 림시회의 소집까지 주장해 나섰다. 〈민주당〉도 권모술수를 쓰는 데는 수가 낮은 편은 아니였다. 말하자면 〈자유당〉은 제 손으로 벌의 둥지를 쑤시고 거드랑에 얼굴을 파묻는 격이 되고 만 것이다.

결국 〈자유당〉은 〈떼여 내고〉 〈내려 깎는〉 방법으로 만들려던 〈3분의 2〉를 만들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수학적 무능력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그래서 그들 입에서 나온 소리가 〈우리는 앞으로 내각 책임제로 넘어갈 작정이다〉라는 소리다.

〈헌법〉을 뜯어 고칠 수 없게 된 그들은 〈국회〉내에서 과반수 이상의 다수로써 현재의 〈대통령 책임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어 리 승만이가 죽고 장면이가 〈대통령〉이 되여도 그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이것으로 실권을 계속 장악해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개 싸움이 이것으로 싱겁게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당〉과 〈민주당〉의 맞불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6월에 개막될 4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자유당〉 내부에서도 세력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즉 〈국회 부의장〉과 〈국회〉내 15명의 〈상임 위원장〉 및 〈원내 총무〉 〈부총무〉 자리를 둘러 싸고 리 재학 파와 장 경근 파가 격투를 진행하여 왔는데 요새는 정 명섭이라는 자도 여기에 뛰여들어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하게 되였다. 이것은 〈자유당〉이 3분의 2 계선은 고사하고 2분의 1 과반수 계선도 그것이 확고한 것이 못된다는 증좌의 하나이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지배 계급으로 남아 있는 한 이러한 싸움질은 끝장이 나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곱사등이는 저승에 가야만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오 정삼

부산시 범일동에 사는 《동아 대학》 2년생 리 상주는 괴뢰군 징집 〈령장〉을 받은지 반년이 넘었다.

그 동안 리 상주는 홀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선친이 남겨준 집까지 팔아서 근근 대학이라고 다니고 있었다.

물론 징집 〈령장〉이 안나오고 대학에 더 다닐 수 있다 하드라도 이제부터는 학비댈 밑천조차 까마득하게 된터이고 부득불 대학에서 쫓겨나게 될 판에 〈징집령장〉을 받고 보니 이놈의 세상을 저주할 밖에 없다.

더구나 리 상주는 괴뢰군에 끌려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바로 그의 아버지가 전쟁이 터지던 전해에 괴뢰군에 끌려가 개죽엄을 당하지 않았는가! 또한 자기의 선배들인 〈동아 대학〉 상급반 학생들이 개목아지에 올개미를 씌워 끌어가듯 끌리여 가서는 매와 굶주림으로 기압 훈련을 당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 참지 못해 수재였던 차 봉수 학생은 훈련소 변소 들'보에다 목을 달아매고 자살까지 한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이즈음 남조선에서는 하나의 류행어가 돌고 있다. 딸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훈련소생에게 시집 보낼 테〉이라고 하지 않는가! 훈련생이 얼마나 가련한 신세인가를 알 수 있다.

즉 괴뢰군에 입대하기 전 초벌 론산 괴뢰 훈련소에서 3개월간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 훈련 기간에 훈련생들은 헐벗고 굶주리여 갖은 고초를 여기서부터 겪어야 한다.

리 상주는 징집 〈령장〉이 날아 들어오는 날 홀연히 집을 떠났다. 괴뢰군 징집을 반대하여 료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이 그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리 상주는 부산항 부두 로동자로 막벌이'군이 되였다. 일이 얻어 걸리는 날에는 하루 십오시간 까지 로동을 하였다 .그는 로동자 대렬 속에서 반미 반 리 승만 감정이 팽배함을 날로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리 상주는 그 날도 일이 없어서 부산항 부두에서 밀려 나오다가 그만 경찰의 홀치기에 걸려 들었다.

리 상주는 부산 경찰서 류치장에서 몇 날을 지내고 지금 론산 훈련소로 끌려가고 있다. 그를 대동하고 가는 경찰놈은 젊은 나이에 벌써 가재 수염을 한 것이 영낙없이 히틀러를 련상시키고 있다.

경찰놈은 차중에서 리 상주를 감시하다가는 차창에 비치는 매마른 론산'벌을 바라보면서 홀치기의 명수로서 이번에 틀림없이 어깨에 별이 하나 더 늘리라는 단꿈을 꾸고는 저도 모르게 입을 헤식하고 있다.

다 낡아 빠진 기차는 기어가듯 헐떡거리며 덜그럭 거린다. 그 때마다 차'간은 네모의 쐐기가 물러나듯 찌그러졌다가는 겨우 몸을 추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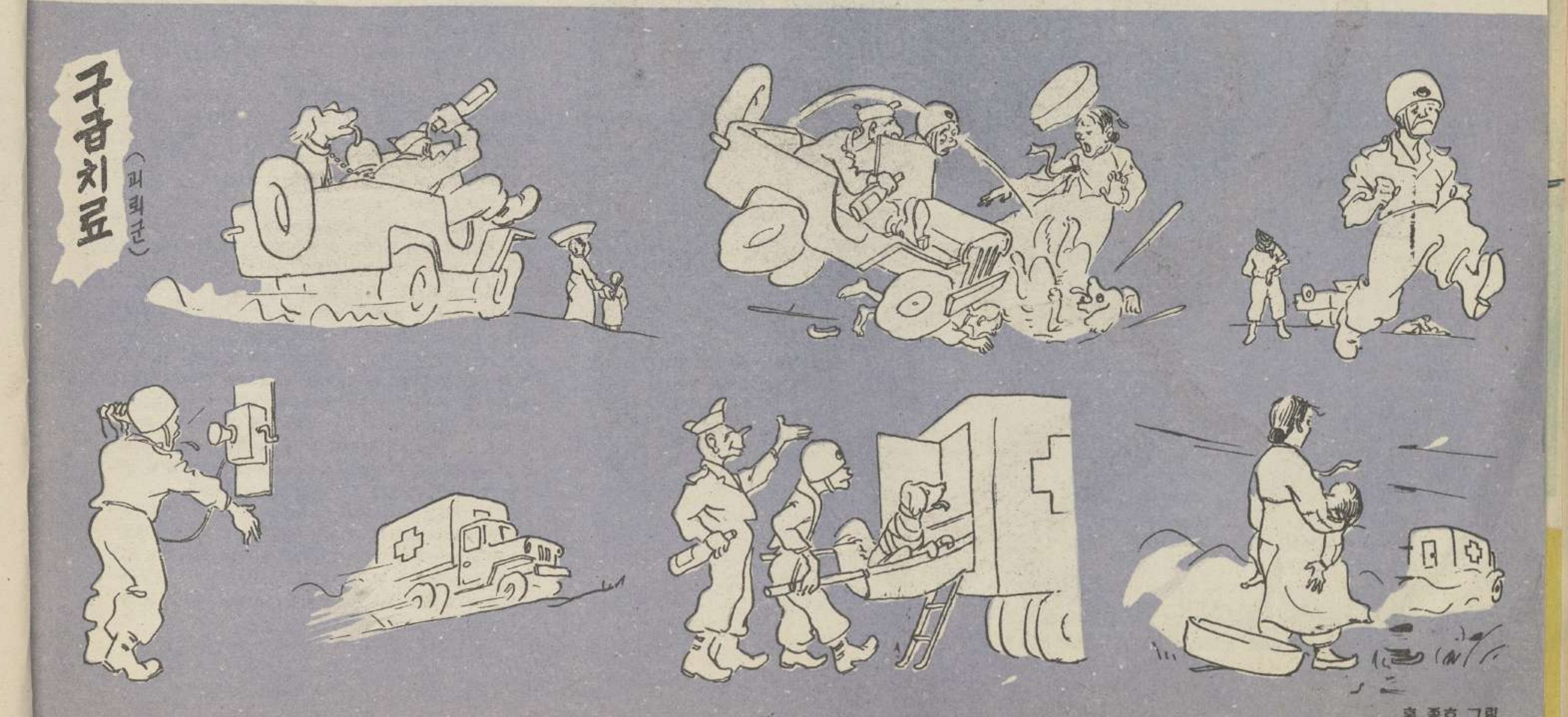
리 상주의 머리 속에는 오만 궁리가 휩싸돌고 있다. 씩씩거리며 기차가 산구비를 돌아갈 때 리 상주는 몸을 날새게 날리어 창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일순간의 일이다. 경찰놈도 그 옆의 사람이 〈누가 창밖으로 떨어졌다〉하고 소스라치게 질른 고함소리를 듣고서야 리 상주임을 알았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 산구비를 돌아간 기차는 내림바디 길이라 화살같이 내달리고 있을 때였다.

그리하여 올해 스물세살 나는 리 상주 학생은 징집을 반대하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대오에 용감히 뛰여들어 갔다.

한편 경찰놈은 닭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격으로 퀭한 눈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면서 차창 밖을 내다 보고 있다.

괴뢰 〈사회 보건부〉의 본신 사업

리 영춘 그림



홍 종호 그림

류행어 만화사전

《유·에스》주택

백 인균 그림

《공정 가격》

남조선 각《병사계》들에서는 징집에서 면제해 준다고 하면서 강제징집 대상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요하고 있는바 1인당 6~10만환이《공정가격》으로 되여 있다

괴뢰군의 처지

박 승히 그림

최근 미제는 미군 전용차에 탔다 하여 괴뢰군을 달리는 렬차에서 내여 던져 한명은 즉사 한명은 치명상을 입히였다

힘든 거수기

김 문 규

〈주영 한국 대사〉김 용우는 그렇지 않아도 꿈자리가 뒤숭숭 했었는데 정작 서울로 돌아오게 되니 근심은 태산같이 높아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딴에는 별로 잘 못한 것같지 않는데 워낙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분간하기 힘든 남조선의 노름판국이라 트집을 잡으면 무엇이든지 안걸릴 수 없는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로되는 개판 노릇이다. 하물며〈대사〉랍쇼하고 영국에 갔다가 제네바에서 열린〈국제 회의〉에 참가하였는데 그 때에 일을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 자기로서는 도대체 분간할 수 없는 일이다.

제네바에서 해양선 문제를 가지고〈국제 회의〉가 있으니 미국의 풍무니를 따라서 거기에 참가하라는 리 승만의〈훈령〉을 받은 김 용우는 거저 회의에 가서 가만히 앉아나 있고 미국이 시키는대로 거수만 하면 그만이라고 일찌기 경험한 바대로 짐작했었는데 정작 회의에 참가하고 보니 딱한 문제가 생겼다.

미국이 내놓는 제안이 리 승만〈대통령〉이 해양선 문제에서 일상 떠버려오던〈국시〉와는 보조가 맞지 않았다. 리 승만의〈국시〉대로 주장하여 미국을 반대해야 할 것인가 미국을 지지하고 리 승만의〈국시〉를 저바려야 할 것인가, 참으로 딱한 일이다. 김 용우는 미국 제안에 대한 거수가결이 있기 전에 불이나게 서울에 전보를 쳐서 리 승만의〈훈령〉을 요청했다. 얼마 지나서〈훈령〉이 왔는데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달라는 소리인지 주라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국시 그것은 직접 미국의 의사에 의하여 수립된 것인지라 국시와 미국의 의사는 이체동심이다. 어느쪽을 지지하고 어느쪽을 반대한다 함은 한국의 사절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인즉 잘 판단하여 선처할지어다〉아무리 고개를 기웃거려 보아도 선처하는 방식이 생각나지 않은채 회의에 참가한 그는 마지막 손을 드는 판에 가서 그만 얼김에 미국을 반대하여 손을 쳐들었다. 〈먼 곳에 있는 법관보다도 가까운 주먹이 더 무섭다더니 하는 수 없지〉이렇게 혼자 뇌까리면서 회의장에서 나왔는데 아닌게 아니라 자기를 곁눈질로 쏘아보는 미국대표의 모밀눈알이 매섭기는 했다. 자기는〈국시〉를 위반하지 않았으니 잘했다고 스스로 거듭 위안해보았지만 미국을 반대했다는 엄연한 사실이 머리를 우울하게 억누르는 것이였다. 이때부터 그의 꿈자리는 뒤숭숭해졌다.

서울에 와서 소위〈구라파 주재 공관장 회의〉에 참가하면서도 언제 어느 때 자기헌테 불벼락이 쏟아질것인가 겁에 질린채 눈치만 슬금슬금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모두 잠잠하고 말 한마디 없다. 리 승만의 상판도 유심히 쳐다 보았는데 입술과 낯상판살을 씨무룩거리는 일상 버릇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러한 추궁 하나도 없으니〈오라, 내가 하기는 바루 한 것이로구나〉하고 안심이 되였다. 오래전부터 있은 시름이 풀려 나가는 것 같았다.

어느날 전화벨이 요란히 울렸다. 전화통에서 첫 마디를 받자마자 김 용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알은 휘둥그래졌다.

〈아니 조금전에 내가 그 곳에 있었는데 그 때까지는 별소리 없었는 데요, 별안간 무슨 말이요〉모기 우는 목소리로 대구했더니 전화통에서는 아무 소리 없이 수화기 놓는 소리만 달가닥 들려왔다.

그리하여〈주영 한국 대사〉김 용우의 목아지가 떨어졌다. 리 승만이가 전에는 뭐라고 떠버렸든 간에 미국 상전의 의사인즉 곧 리 승만의 새로운〈국시〉가 될것이라는 사실도 리해하지 못하고서야 어찌〈한국 대사〉감투를 쓰고 배길 것인가?

거수기 노릇도 해먹기 어려운 모양이다.

개표의 결과

송 용남 그림

지난 5월 2일에 감행된 남조선 괴뢰「국회」선거는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선거」뽀이꼬트 무효 투표 폭동이 보여준 바와 같이 인민들이 반미 반 리승만 기세가 그 어느때 보다도 드높아 가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무력 간섭을 용허하지 않는다

리 춘수 그림

사람은 죽어도 병은 낫는다

신 홍 순

최근 남조선의 기독교 목사들은 양키와 어깨패를 닮아가는지 곧잘 사람들을 때려 눕힌다.

병이란 의학으로서 약이나 치료 도구를 가지고 고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초보적인 상식인데 요즘 남조선 목사들은 그러한 과학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안수기도》니《심령기도》니 하는 엉터리 없는 짓으로 병을 고칩네 하다가는 환자를《천당》으로 보내는 사건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안수기도》란 고요한 밤중에 환자를 례배당에 데려다 놓고 목사가 큰 소리로 성부, 성자, 성신을 부르면서 환자를 어루만지다가는《령봉》(신 받은 몽둥이)으로 두들겨 패면 폐병이고, 심장병이고, 신경통, 관절염, 신경쇠약, 반신불수, 부인병, 지어는 장질부사나 발진티브스 같은 전염병까지도 낫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양키들이 미개국에서나 하는 허무맹랑한 수'법이다.

이렇게 하여 환자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들까지도 끌어 들이는 일종의 교인 흡수 방법인 것이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오늘날 남조선은 미제의 침략 정책 아래 무서운《병마의 소굴로》《질병의 도가니》로 전락되였다.

보건 대책도 없고 의료 시설이 형편 없는 데다가 돈없는 근로자들은 비싼 치료비를 낼 수가 없어 병이 나도 속수무책으로 죽음만 기다리는 그야말로《병원 있으나마나》《의사 있으나마나》의 형편이다.

그러니 병마에 시달린 환자들은 기독교 전도관이란데서 병을 고쳐 준다는 바람에 목사의 말을 곧이 듣고는 한번 속는 셈 치고 따라 가기도 한다.

헌데《사람은 죽어도 병은 낫는다》는 식인지 바로 얼마 전만 하여도 서울시 룡산에 있는 기독교 전도관에서는 박 태선이란 목사가《성신》받은 몽둥이로 환자를 두들겨 즉사케 하였고, 충남 보령군에서는 목사가 환자의 목을 눌러 죽였으며, 경기도 포천읍에서도 반신불수가 된 리 보상이란 농민을 란타하여 절명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강화도에서도, 영등포에서도 남조선 각지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거듭되고 있다.

인공 위성이 우리들 머리 우를 돌고 있는 이 과학시대에 목사들의 우매한 짓으로 하여 이와 같이 인간의 생명이 무참히 희생된다는 것은 오늘 날 남조선과 같은《죽음의 땅》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일이며 또한 살인을 치고도 머리카락 하나 까딱 없으니 이 또한 무법 천지인 남조선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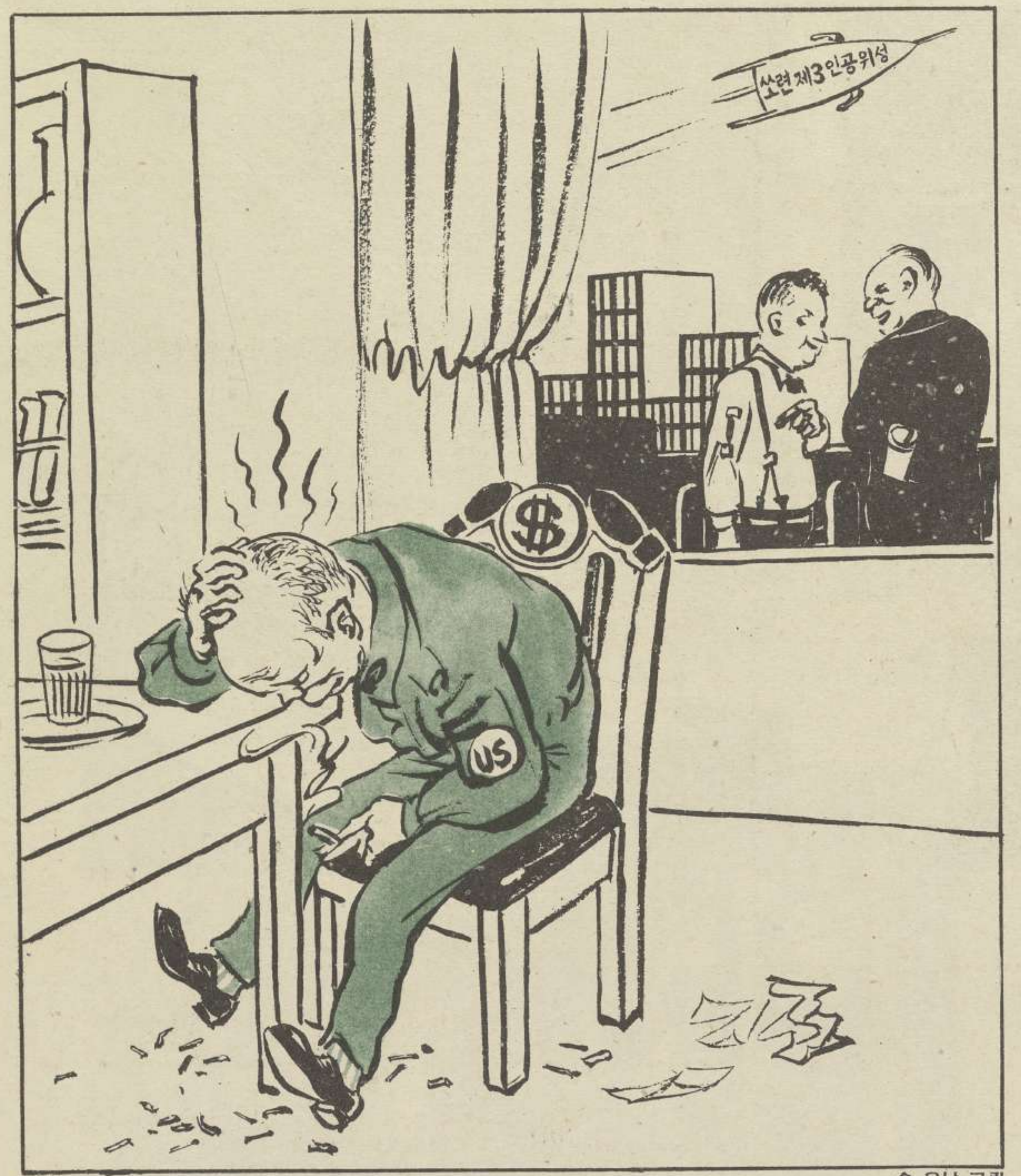
아마도 기독교 목사들은 미국의 하느님을 믿다가 20 세기 살인귀인 미제놈들의 본을 따는 모양인가?

그래서 요즘 남조선 인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도를 전파하는 전도관〈傳道館〉인게 아니라 사람을 때려 눕히는 전도관〈顚倒館〉이고 목사란 칠 목〈牧〉자 죽을 사〈死〉자, 즉 쳐서 죽인다고 목사라고…》

또는《흥! 거 정말 사람은 죽어두 병은 나았다는 격》이라던가?

더 무거워졌다



—쏘련 인공 위성은 미국의 것 보다 100배나 더 무겁다지
—그래서 저 사람의 머리는 더 무거워졌다네

송 용남 그림

③ 인공위성을 쳐다보면서

유 항림

미국의 어느 한 로인이 저녁 후에 손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 밤 하늘엔 쏘련의 제 3 인공 위성이 류성과 같이 지나 가고 있었다. 손자는 호기심이 많았다. 자꾸만 물었다.

《할아버지, 어째서 미국의 인공 위성은 보이지가 않나요?》

《쏘련의 인공 위성에 비하면 백분지 일 밖에 안되니까…… 얘야 넌 어리다. 너는 미국의 인공 위성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늙었다. 미국 인공 위성을 죽기 전에 내 눈으로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지 않구나.》

《인공 위성에는 수소탄을 실나요 원자탄을 실나요?》

《아니란다 쏘련의 제 3 인공 위성에는 우주 공간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실려 있다더라.》

《그러면 백악관에선 왜 쏘련의 인공 위성을 그처럼 무서워 하는가요?》

《그건 <힘>으로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더라.》

《어째서요?》

《우화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승냥이가 코끼리에게 화를 낸 것은 코끼리가 승냥이의 생존을 위협한 때문이 아니라 승냥이로서는 코끼리를 위협할 수가 없으며 자기에게 굴종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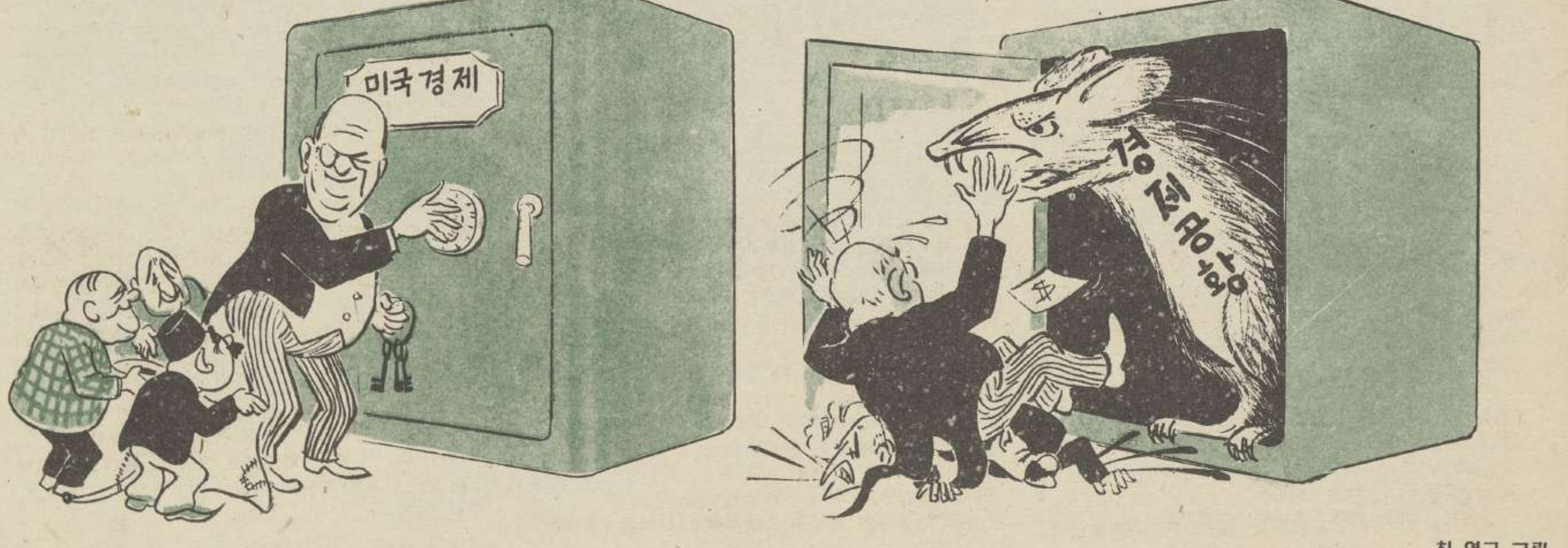
《코끼리는 어째서 승냥이를 위협하지 않는가요?》

《승냥이는 다른 동물을 잡아 먹고 살지만 코끼리는 풀을 먹고 산단다. 그러니까 코끼리는 다른 동물을 해칠 생각을 하지 않는단다. 그런데 우화에도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승냥이가 생각하기를 코끼리를 한 마리 잡는다면 일생 동안 먹고도 남을 텐데, 힘이 자라지 못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래서 잇발을 들여내 놓고 으르렁거려도 보고 짖어도 보고 발톱으로 땅을 파헤쳐 보기도 했지만, 결국 코끼리에 대해서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돌아섰단다. 코끼리에게 달려들었다가는 자기가 당장에 죽으리란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백악관 사람들에게 그 우화를 말해 주셨으면 좋지 않아요?》

《백악관 사람들도 그걸 깨닫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나로서도 충심으로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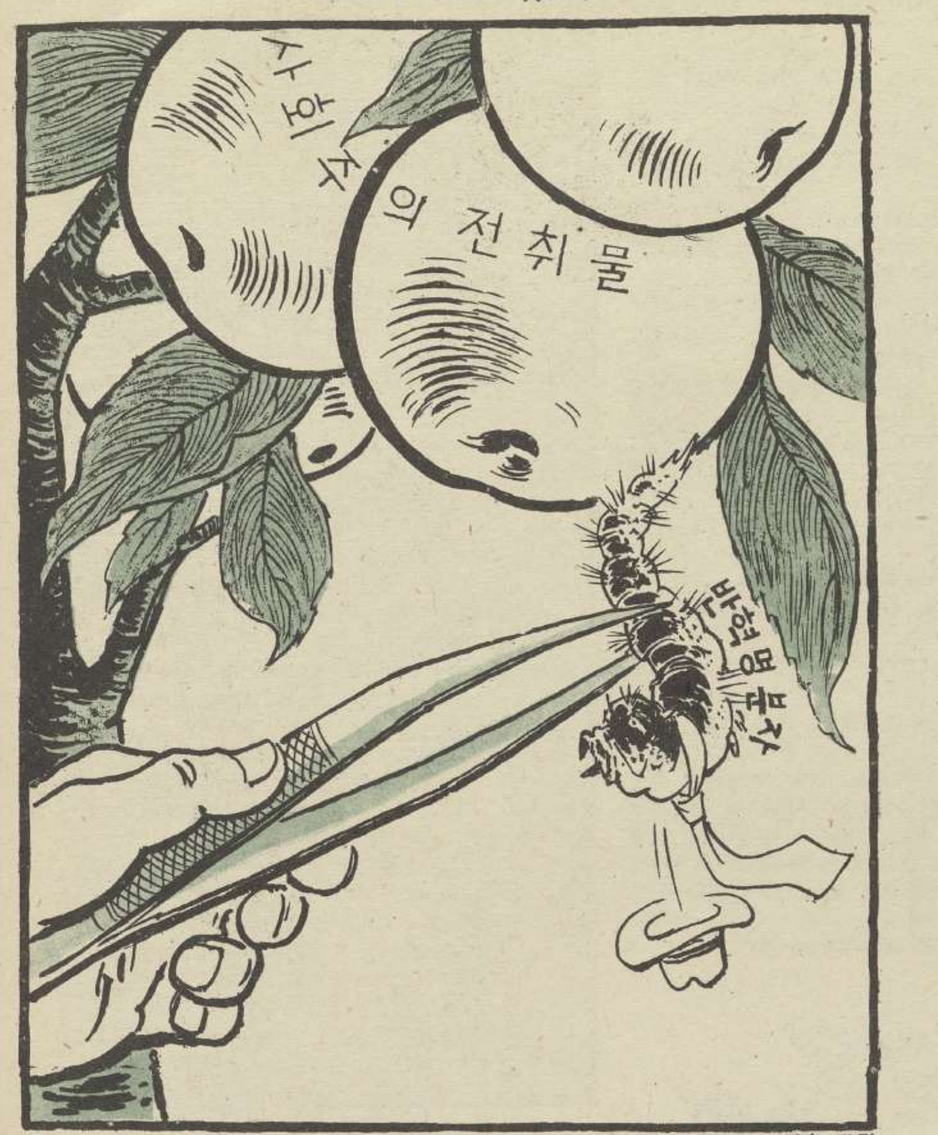
자랑 끝에 봉변



최 영근 그림

미국의 경제공황은 그의 추종 국가까지 휩쓸고 있다

제때에 집어 냈다



리 영춘 그림

우만 쳐다보는 사람들

홍 종호 그림

낡은 지도 방법

머리만 혼돈 시켰다

군에서 부기원들을 위한 강습회가 진행되였다.

강사는 두툼한 강의 제강을 들고 연단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마치 청강자들이 얼굴을 볼까바 두려워나 하는 듯이 제강에 얼굴을 파묻고 열심히 제강을 읽기 시작하였다.

청강자들은 열심히 받아 썼다.

강사는 여러가지 계산법과 기입법에 대하여 한 마디의 해설도 없이 계속 읽어 내려 갔다.

청강자들은 무슨 뜻인지 잘 리해되지 않는 대목이 많아 설명을 바라는 표정으로 강사를 쳐다 보았으나 강사는 이런 것은 도무지 아랑곳 없는 듯이 그냥 읽기만 한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전에 강습 받던 것 하고 좀 다른데 어느 쪽이 옳습니까?》

한 청강자가 질문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것은 도에서 강습 받은 것 고대롭니다》

그러나 질문을 제기한 사람은 여전히 잘 리해되지 않았지만 강의를 지연시킬 수 없어 더 묻지 않았다. 강의는 계속되였다.

강사는 복식 부기에 대해서 강의하기 시작하였다.

《복식 부기에 있어서…》

이 대목에 들어서자 강사는 마치 마구 쓴 남의 노트를 읽는 것처럼 떠뜸거리기 시작했다. 청강자들은 더욱 얼떨떨해졌다.

《강사 동무, 복식 부기에 대해선 더 리해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동의하는 말들이 일어났다.

강사는 난처한 얼굴이 되더니 주저주저 대답했다.

《저도 복식 부기에 대해선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강습은 끝났다. 청강자들은 돌아 가면서 중얼거렸다.

《되려 머리만 혼란시켜 놨는데》

도에서 조직한 강습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관계도 없는 일'군을 파견했던 결과에 바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부서 본위주의

연안군 조성리 보성 농업 협동 조합으로 군 인민 위원회에서 많은 지도원들이 내려 왔다.

그런데 이들은 한개 지도 그루빠가 아니라 영농 준비 지도 그루빠,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운영 지도 그루빠, 관개건설 지도 그루빠, 산림 식수 지도 그루빠, 신용 협동 조합 지도 그루빠 등 다섯개의 지도 그루빠였다.

관개 건설을 지도하려 나온 지도원이 관리 위원회에 들어오더니,

<위원장 동무, 관개 공사하는데 사람들을 보내야 겠습니다>

<관개 공사에요? 보내야지요>

관리 위원장은 관개 공사에 보낼 로력을 토의하기 위해서 관리 위원들을 부르러 가다가 영농 준비를 지도 나온 지도원을 만났다.

<자, 관리 위원장 동무, 랭상모판 준비에 조합원들을 총동원시켜야겠소>

관리 위원장은 딱한 얼굴로 말했다.

<야단 났구만요, 관개 공사에도 사람들을 보내야 할텐데…>

<관개 공사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영농 준비요. 랭산모를 제때에 붓는 문제가 지금 조합에서 제일 중요하오>

관리 위원장은 머리를 벅벅 긁고 있는데 식수 사업을 지도하러 나온 지도원이 찾아왔다.

<오늘 식수 사업에 모두 동원돼야 겠습니다>

관리 위원장이 대답도 하기 전에 신용 협동 조합 지도 그루빠 지도원이 들어오더니 또 자기가 맡은 일이 중요하다고 하며 그 사업부터 하자고 했다.

관리 위원장은 벙벙해져 대답을 못하고 섰는데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운영 지도 그루빠 지도원이 들어와 자기 일이 바쁘다고 하며 조합 관리 사업 정형부터 보자고 했다.

관리 위원장은 의자에 물러 앉고 말았다.

이 모든 사업들이 모두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관리 위원장으로 하여금 난처케 한 것은 모든 사업이 면밀한 계획에 립각하여 진행돼야 하는 조합 영농 사업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주먹치기로 깜빠니야 식으로 또 게다가 부서 본위주의에 사로 잡혀서 제가끔 제 장단에 춤을 추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업들을 원만히 보장하려면 우선 이 조합의 로력 투하 계획이 그에 적응한가 안한가를 검토 조절하여 주고 그 후에 계획대로 그리고 질적으로 되는 가를 지도했어야 했을 것이다.

리 운봉

디스토마 방역 전선 이상

윤 동수

구태여 디스토마의 해독성을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거야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니까

나의 관심은 디스토마 중간 숙주라고 일컷는 <게, 가재, 골뱅이 박멸에 대하여>에 있다.

그것도 세상이 다 아는 것이 아닌가고 물을 수 있다.

그렇다 . 세상이 알고도 남은 일이다.

그러나 이 <알고도 남은 일>이 <알고도 모를 일>로 되여 있기에 관심을 쏠리게 되는 것을 어찌하랴……

우리 당이 지난 5월 4일에 채택한 결정과 내각 결정 52호에는 디스토마 질환을 금후 3년간에 말끔히 없애 버리자는 과업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오늘 어린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팔소매를 걷어 붙이고 게요, 가재요, 골뱅이요 할 것 없이 씨알머리 남기지 않고 박멸하는 한편 우물과 변소를 새로 만든다, 혹은 개조를 한다, 하천을 돌린다, 개천, 시궁창, 작은 내, 큰 내들을 정리하는 사업에 전 군중이 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일떠서고 있는 사실은 얼마나 장쾌한 일인가.

그런데 황해북도 수안군만은 조용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을의 제 1 병원 원장 자신이 깊은 잠에 드시고 계시는 데야……

내가 이렇게 이곳 일'군들에게 경어를 아끼지 않는 것은 결코 비웃는 어조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이 증명하여 준다.

병원장 벼슬 자리를 지키려면 률을 차리고 위풍부터 보여야 할 것인즉 나무랄 것이 없고 군자는 대로행이라 하였으니 병원 마당과 길부터 닦고 병원 일'군은 치료 사업이나 잘 하는게 도리니 하고 본즉 그까짓 골뱅이를 잡아라, 게, 가재를 잡아라, 변소를 고쳐라 개천을 쳐라 하는 따위 일에야 어떻게 발 벗고 나설 수 있겠는가.

더더구나 기술 일'군이 부족하다는 구실로 황해북도 보건부에서는 금천군 제 1 디스토마 예방소와 곡산군 제 2 예방소에다 기술 일'군은 배치하지 않고 행정 일'군을 배치하니 디스토마의 치료 예방 사업이 얼마나 잘 되였겠는가……

말이 난 김에 한 마디 더 한다면 평남도 어떤 군의 보건부 량반들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인민들에게 디스토마의 중간 숙주인 게, 가재, 골뱅이를 먹으면 해로우니 잡아 오라고 엄읍에 박밀듯이 력설하여 놓고는 막상 잡아 온 게며 가재를 안주로 하여 금준미주를 기울이면서 농탕을 쳤다니 이러고서야 어떻게 디스토마를 박멸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는가.

치료 예방 일'군들이여 제발 이러지 맙시다.

음료수로 될 수 없다

황해남도 일부 평야 지대에서는 아직도 개울 물을 그대로 마시는 현상들이 있다. 허 능택 그림

게으른 끝에 바빠났다

원 광수 그림

위생검열 속첩

껍데기만

5월 중순—큰길로 순천군을 지나가노라면 이 군에서는 위생 사업을 원만히 해 놓은듯이 보인다. 도로는 정리되고 가로수도 가꾸어졌으며 집들은 회칠을 했다. 그러나 껍데기 뿐이다. 순천군에서 자산으로 가는 도로 (자산리)로 가노라면 큰길에서 잘 보이는 집 앞의 울담에만 회칠을 하고 정작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는 회를 바르지 않은 집이 있는가 하면, 먼데서 보면 깨끗이 회를 바른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초벽만 바른 토벽에 대강대강 회칠을 해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은 집도 있고, 도로에서 보이는 뒤'벽에만 회칠을 하고 도로에서 돌아 앉은 앞벽은 회칠을 하지 않은 집도 있다.

또 순천 읍에서 얼마나 위생 사업을 형식적으로 했던지 눈에 제일 잘 띄우는 도로는 깨끗이 정리하고 가로수도 잘 가꾸어 놓았는데 그 가로수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 집은 회칠을 안했다.

우리가 하는 위생 사업이 남의 일인가?

그런데 순천군에서는 마치 남의 일을 하듯 위생 사업을 하고 있다.

안되는 원인

대동군에서는 4월 25일까지도 전 인민적인 위생 사업에 첫발자욱도 내디디지 않고 있다.

군 농민 은행과 군 소비조합은 청소도 안해 책상과 창문에 먼지가 쌓여 있고 읍 인민 위원회는 너저분하고 위생 사업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해야 할 두부 공장, 빵 공장, 식당, 려인숙, 리발소, 상점들은 모두 영업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위생 사업이 돼 있지 않다. 놀라운 것은 군 인민 위원회 보건 담당 부위원장 자신이 자기 돼지 우리를 집 곁에 남겨 두고는 옮기라고 해도 안옮기고 돈사 청소도 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가서 마지 못해 옮긴 사실이다.

군 지도 일'군 자신이 이렇게 위생 사업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으니 군내 위생 사업이 어떻게 잘 되겠는가?

의무 시간도 모른다

보건 위생 사업을 치료 의학적 방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예방 의학적 방법으로 진행할 데 대한 당의 교시 실천에서 의료 일'군들의 역할은 실로 크다. 때문에 보건성령 제 25호에는 위생 선전 사업은 보건 일'군의 선차적 과업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의료 일'군들의 선전 의무 시간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평양시 중구역 병원 내'과 준의 문 영길 동무는 신암동을 담당하고도 청소 미화 월간으로 전체 인민이 동원되였던 4월에 위생 선전 사업을 겨우 의무 시간의 13% 밖에 안했다. 심지어 그는 자기의 의무 시간이 몇 시간인지도 몰라서 구역 방역소에서 나가 물으니 《한 달에 200 시간인지…》하고 대답한다. 무슨 200 시간씩 되겠는가고 하니 또 《한 주일에 여섯 시간이던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고 있으니 위생 문화 사업에 어떻게 동원되고 있는가는 짐작할 수 있다.

의료 일'군들은 환자가 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한 줄로 알지 말고 환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더 노력하자.

의사는 병에 안걸리는지?

위생 문화 사업을 개선하는데 보건 기관은 위생 선전은 물론 자기들의 실지 행동으로서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강동군 인민 병원은 5월 초까지도 간데마다 먼지가 뽀얗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탄재가 사방 무데기를 지어 있다. 파리는 많아도 파리채는 없다.

그리고 변소는? 변소 안의 더러운 물이 딴데로 새여 나가지 못하도록 변소 안을 세멘트로 바르고 개폐식 뚜껑을 해 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의료 일'군들은 병에 걸리지 않는 줄로 아시는 모양인지.

리 운봉

보다 더한 아주머니

리 영춘 그림

이곳저곳

마이동풍

중구역 성안 식당에 가면 식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미간을 찌프리지 않을 수 없다. 식당 주위에 오물이 너저분하게 산재돼 있기 때문이다.

식당에 척 들어서면 천정이 뚫어진 것을 수리하지 않아 시꺼먼 구멍이 선뜩 눈에 띄우는데 바람이 불 때면 거기에서 먼지나 흙이 떨어지리라 생각하니 음식 맛까지 없어진다. 바닥과 취사장도 어지럽다.

또 위생모를 쓰지 않은 접대원이 있는가하면 위생복도 입지 않은 접대원이 있어 누가 접대원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너무 어지러워 구역 인민 위원회에서 개선할 데 대하여 지적을 주었으나 의연히 위생 상태는 개선되지 않아 10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주었지만 이들은 흠칫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했다. 계획 달성을 운운하면서.

성안 식당 일'군들! 손님들에게 불결한 음식을 대접하고도 계획만 달성하면 된단 말인가?

불결한 학교

개천군 남전 제 2 인민 학교에서는 5월 중순까지도 위생 사업을 잘 하지 않고 있다.

교실 출입문은 너덜너덜하고 벽은 떨어진 것을 바르지도 않고 그 우에다 회칠만 했으며 구석들에는 거미들이 살고 있다. 지금 전체 학교들에서는 위생 사업의 선두에 서서 위생 선전을 하며 가두 위생 사업까지 협조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는 왜 학생들의 책상 하나 정연하게 놓지 못하는가? 그리고 변소도 파리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개조하며 뚜개를 해 달아야 할텐데 이 학교에서는 퇴비를 생산한다고 하면서 변소 안에 흙을 약간 덮고는 변소 뒤의 액비 퍼내기 위한 구멍 뚜개를 열어 놓아 파리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파리채도 들고 다니게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청소 하나 하지 않아서 어디에나 먼지들이 쌓여 있으니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문화 교양을 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복남이가 더 눈에 띄인다

빽 인균 그림

그런것쯤 참으셔야지요

여기는 원산시 편의 협동 조합 제 5 려인숙입니다. 려인숙 아즈머니와 손님 사이에 재미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가는 모양인데 들어봅시다.

아즈머니—그런것쯤이야 좀 참으셔야지요…… 아무리 습기 찬 방이라 해도 하루쯤이야 못 참으시겠서요? ……

손 님—그럼 그것은 참는다 합시다. 그런데 어보세명이 정원인 방에 다섯명을 넣고 세명분 이불만 주는건 대체 어떻게 된 셈이요?

아즈머니—미처 세탁을 못해서 그렇게 됐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좋은 수가 있는걸 손님은 아직 모르시는군요— 바자는 벗어서 베구요, 저고리는 벗어서 덮으시면 되지 않아요? 잊어 버릴 념려두 없고……참 손님두……하루만 깜빡 참으시면 될걸 그러시네……

이렇게 되여 운수 나쁘게 이 려인숙에 들게 되였던 손님은 아즈머니의 말대로 깜빡 하루를 참고 다음날 국영 려관으로 옮기였지만 위생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전 인민적 운동이 벌러지고 있는 이때에 이 려인숙에서만은 참는 것으로 한 몫 보려는 셈인지……

장난 꾸러기니까

인성이 엄마는 워낙 부지런해서 집안 일에 몸 아끼지 않고 일 잘 한다고 소문난 어머니다. 주위 환경과 집 내외를 아름답게 가꾸고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업에서도 모범을 보였다. 집 안팎에 회칠을 하고 꽃밭을 꾸리고 이부자리까지도 새'맑갛게 빨아서 새로 꾸몄다— 그러건만……

학교에서 선생님은 <얘 인성아 네 손발은 더운 물에 잘 불궈서 씻어야겠다> 하고 주의를 주어야 했다.

장난꾸러기가 돼서 씻은 뒤가 없다고 어머니는 한탄만 하신다. 그러면 커서 장난을 치지 않게 된 후에야 인성이는 깨끗해지려는지? 주위 환경만 깨끗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깨끗치 못 하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닐까?!

깨끗치 못한 습성

박 승히 그림

—아저씨는 가래침을 왜 멀리 뱉나요?

—더러운 것이 돼서 그런단다

노래소리 아름다우나…

백 인균 그림

당연한 결과

허 능택 그림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 위생 방역 사업이 한때 잘 집행되지 않은 데는 그 리유가 있다.

반당 종파 분자 고 봉기와 백 순제는 도내 보건 위생부문을 지도하는 도 인민 위원회 보건부장 자리에 정치적으로 불순한 정치대.허 각을 의식적으로 등용하였다.등용된 이자들은 황남도 보건 위생 부문에 정치적으로 불순한 분자들을 13명이나 끌어 들임으로써 의식적으로 보건 위생 사업을 망쳐먹으려고 조작하였다. 이자들은 중앙에서 속보 받는 환자의 수를 쭈려서 허위 보고하여 자기들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기만하는 데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하여 상급 기관에서 제때에 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조작하였으며, 신천군 봉영리를 모범리라고 정해놓고는 모범부락을 보러 온다고 하면, 가로수를 꺾어다 꽂아 놓고 집의 회칠은 보이는 데만 하는 등 눈얼림으로 기만하기가 일수였다.

보건성령 제 2호와 중앙 위생 방역소 지시 제 1호에는 의료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사업 규정을 지시하였는바, 거기에는 의료 일'군들이 의무적으로 위생 선전 사업에 동원될 것이 지적되여었다. 그러나 반당 종파 분자들은 많은 경우에 이 지시문을 하부에 전달도 하지 않았다. 결과에 신천군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위생 선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내밀게 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재령군 위생 방역소에서는 자기 본신 사업인 위생 방역 사업에 대한 구체적 연구도·없이 딴 일에만 바삐 뛰여 다니는 형편이였다.

이처럼 황해남도에서는 지난 기간 반당 종파 분자들에 의하여 보건 위생 사업이 의식적으로 외곡 집행되여 왔다.

오늘 종파 분자들의 죄행이 낱낱이 폭로 된 황해남도에서는 보건 위생 사업에서 끼친 그들의 여독을 하루 속히 씻어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락원으로 문화 혁명의 선두에 서 나아가야겠다.

〈적극성〉을발휘하여

신천군 봉화리 평천 농업 협동 조합 위생 소장 신 정만 동무는 오늘도 환자 치료에 바쁜 하루를 보냈다.

위생소의 기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신 정만 동무는 의례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을 정도로 그는 위생소의 사업을 혼동하고 있었다.

위생소로 말한다면 어데까지나 예방학적 방면에서 인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지식을 높이고, 인민들에게 의료상 방조를 주게 하고 급성병이 발생되였을 때에 위생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위생소의 기능에 충실하려면 위생 방역 사업에 대해서 선전 해설 침투시켜야 하겠고, 그러자면 밤낮 뛰여 다녀야 할터인즉 그건 남의 심부름이나하고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찾아 오는 환자를 적당하게 치료나 해 주는 편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생각한 위생 소장 동지, 중환자가 발생되였을 때에 까지도 진료소나 군 병원에 련락할 대신에 자신의 〈심중한〉 진단을 내리는 것으로 만족해 했다. 무슨 병 무슨 병이요, 또 뭐요, 뭐요——이렇게 진단을 붙이여 치료를 하려 하고 있으니, 이러한 지나치는 〈적극성〉은 이모 저모로 위험한 일이다.

위생관념이 없는 진료소장

황해남도 일부 지방에서는 소를 부엌에서 기르는 풍습이 있었다. 옛날엔 농민들이 소를 자기 집 식구나 마찬가지로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엌에서 짐승을 기르면 불결하고 비위생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런 일은 점차로 없어졌다.

특히 사회주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눈부신 전변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농촌에서 이런 비위생적이며 비문화적인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황해남도 청단군 남촌리 간이 진료소 소장 동지네 부엌에도 소가 살고 있으니, 소장 동지만은 아직도 위생이란 무엇인지 모르는 모양— 김 상 애

우산도 없었다면…

허 능택 그림

소독기

차라리 그럴바에야

평양시 청소 사업소 청소원들이 시내 중심 도로를 비롯해서 매개 도로 하수도 청소와 도랑 치기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제일 백화점 앞에서부터 서문거리의 도로 하수도 청소 사업이 있었다.

매개 망호루에 차있는 오물을 끄집어 내놓고는 또 그다음 것으로 옮겨 가는데—차례로 끄집어 내놓은 오물데미가 자연히 줄을 짓게된다. 길 량쪽에 줄지은 오물데미는 오래동안 늘어 앉아 있어야 했으니 볼상도 사납거니와 냄새도 또한 향기롭지 못하다. 청소원들은 소독약을 뿌린다고는 하나 시일이 지나면 말라서 부는 바람결대로 여기로 날리고 저기로 날리고…

청소 사업소에서는 부지런히 청소한다고 길가에다 여러날씩 오물을 널어 놓는데, 할려면 깨끗이 해야지 어렇게한 청소도 청소했다고 할 수 있을까?

개조는 하였건만

음료수를 깨끗이 관리하자, 음료수를 깨끗이 관리하지 않는 데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페디스트마, 적리, 장티프스, 회충증 등 무서운 질병들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우리 마을에서는 우물 개조 사업이 시작되였지요. 우물 귀틀을 쌓아 올린다, 뚜껑을 한다, 또 배수로도 만든다고 서두르게 되였고 드레박도 저저마다 가지고 다니면 불결하다고 공동으로 사왔답니다. 그리고 드레박 놓을 자리도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우물은 개조되였고, 우물 관리에 대한 관념이 점차 높아져 간건 사실이랍니다. 그런줄만 알았더니…… 사람들의 낡은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조합 휴식일이 되면 앞을 다투어 빨래를 하는 통에 우물'가는 어느덧 세탁장으로 변해지고 만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드레박을 놓아둘 자리도 준비되여 있건만 저저마다 진흙 우에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우물 물은 순식간에 진흙물이 되고 만답니다.

우물은 훌륭하게 개조되였건만 사람들의 낡은 습관은 그리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밤낮을 우물 옆에 서있는 우리 버드나무들끼리야 날마다 우물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답니다. 그렇치만 이런 것들은 점차 개조되여 가고 있는 건만 사실이지요.

바 빠서요

여기는 강원도 세포군 배전부 출장소입니다. 4월말의 일입니다. 중앙 위생 방역소에서 나오신 분한데 단단히 지적을 받은 일이 있지만 거기엔 우리의 사정도 있답니다. 워낙 일이 바쁘다나니 우리 직원이야 어데 비짜루 한번 들어 볼 사이가 있어야지요, 더군다나 유리를 닦는다던가, 오물을 제때에 정리한다던가 하는 것이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부터 손쉽게 뜨락에다 오물을 내버리기로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내버린 오물데미에 묻힐 지경이 되였습니다. 물론 사무실 옆에 주택도 함께 있기는 합니다. 우리 가족들 보구 동리 사람들은 낮잠만 잔다고 하지만 애들 데리고 살림이 바빠서 어디 그런 것까지 손이 돌아 가야지요. 그러다 나니 동리 개들은 다 우리 뜨락에 모여 오는 셈인지 집 주위에 개똥 무지가 열대여섯군데나 있지만 할 수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답니다. 물론 꽃밭 같은거야 생각도 못해 봤지요.

독자 여러분, 강원도 세포군 배전부 출장소 형편이 이러한 즉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다면 〈바쁘신〉 이 출장소 일'군들이 오물에 묻혀지기 전에 원조대가 동원되든지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야만 할것 같습니다.

남의 일 같아서

수산 기업소들에서 보건 위생 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한 수산상과 보건상의 공동 지시가 각 수산 기업소들에 하달 된지는 이미 오랜 일이다. 원산 수산 사업소에서도 이 지시를 받았으련만 아직까지도 위생 문화 사업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지시문은 지금쯤 어느 구석에 묻혀있는 모양이다. 사업소나 가공 현장에는 변소 시설이 있다 해도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림시적인 조치로서 만들어진 가마니 변소일 경우가 많다. 문짝이 없건, 벽이 떨어지건 물론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니 주위 환경의 미화 사업에 대해서야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즉 이 사업소가 위생 문화 사업을 맡은 동 사업에 대해서야 더 말할 것도 없는 일, 경제 건설 과제의 보장은 생산 문화를 높임으로서 보장된다는 데 대해서 이곳 일'군들의 머리가 아직 돌지 않는 모양이다.

눈감고 도장찍기

—엄마 아까 영이 엄마 왔댔어……

—어떻게

—응— 도장 찍으러……

—도장? 위생검열 오셨던게로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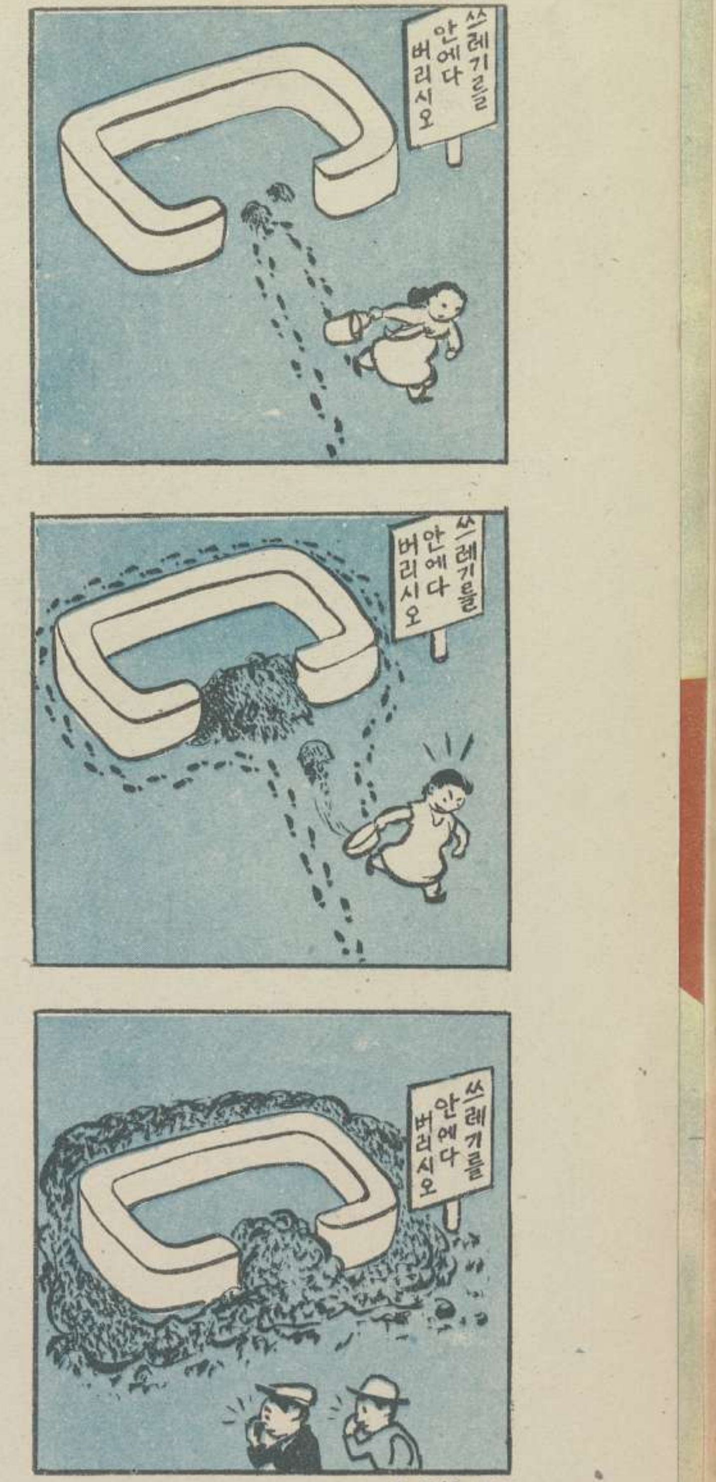
—그럼! 저것 좀 봐요 두줄이나 새로 찍었는데…

—그래?

—영이 엄마가 〈내가 이렇게 오래동안 오지 않았나?〉 그러면서 스무개도 더 찍더니 〈이달이 아직 닷새 남았는데— 마자 찍어 두고 갈까〉 그러면서 더 찍던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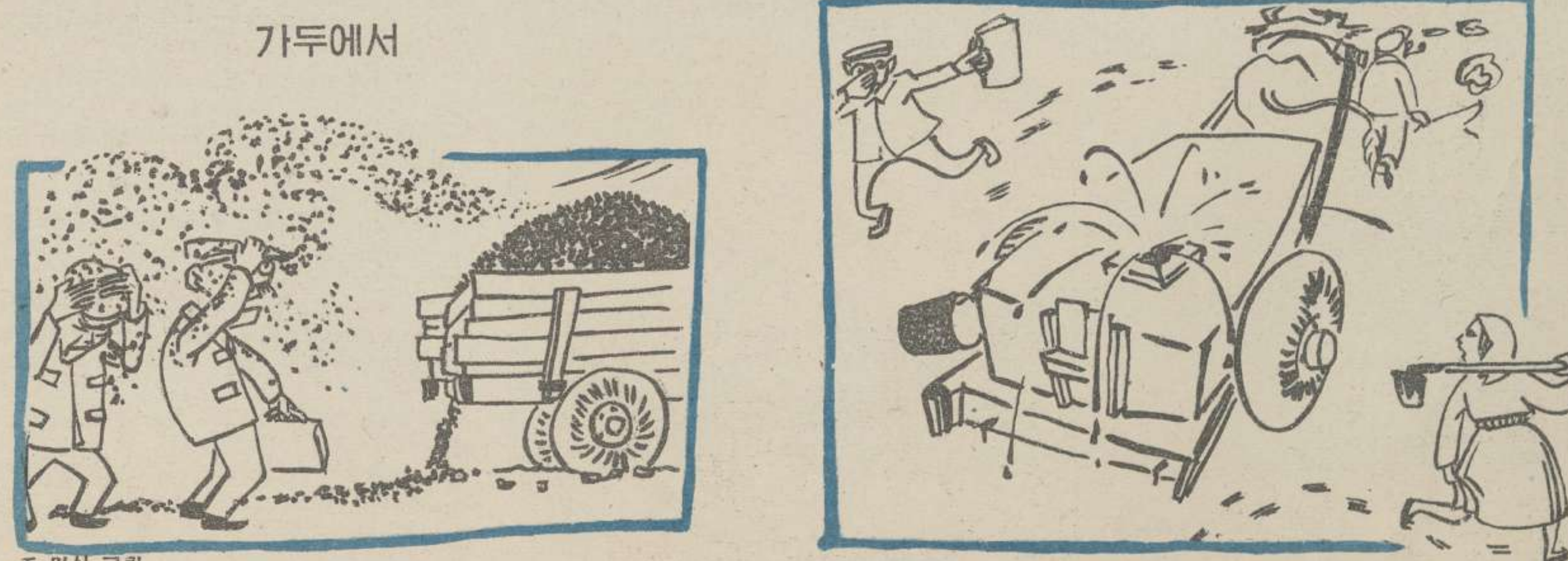
김 상 애

한걸음 더 가서 버렸으면



송 용남 그림

가두에서



조 명식 그림

쥐

신 흥순

박씨 (우측에서 나오며) 아니 돼지고기가 감쪽같이 어딜 갔을가? (두루 찾아 보다가 옆집과의 사이 벽 밑을 들여다 보고) 아이구 요런 깜찍한 놈의 쥐! (흙투성이가 된 조그마한 고기 덩이를 집어 들고) 빼라먹을 놈의 쥐 같으니! 고기 한근을 밤새도록 뜯어 먹다먹다 못해 구멍에다 처박아 놨구나! 이런? (흙을 털다가 문득 옆집을 쏘아 보며) 이집 참 한심하군! 번번이 그저 남의 손해 끼친단 말야. 뭐니뭐니 해두 이웃을 잘 만나야지 원

최씨 (좌측에서 나오며) 아니 뭘 그리시우?

박씨 댁에선 위생 문화 사업을 허는 거예요? 안허는 거예요?

최씨—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웃에서 보시면서 그러시우 원, 비판을 허실게 있으면 직접 우리 집에와서보시구방안 이구 부억이구 이불 의복 어디든지 불결허면 불결허다구 지적 허시란 말예요!

박씨 집 안을 깨끗이 허구 사는 거야 누군 그만치 안헌답니까? 어딜가나 다 그런걸

최씨 그럼 왜 그러시우? 요전번에 영순 어머니가 파리를 잡질 않구 자꾸 내몰기만 허길래 내가 회의에서 비판을 했더니 아직 불쾌하신게로구먼! 비판을 접수하셨으면 뒤'말이 없어얀답니다. 깨끗하게 허구 잘 살자는게 뭐가 글렀나요?

박씨 누가 그래서 그러나요? 잡을 걸 잡아야죠!

최씨 잡을거라니요? 아니 파리야 지금 누구나 없이 파리채를 들구 댕기면서 보는 쪽쪽 잡아 치워서 잡아 약에 쓸래두 없쇠다 원!

박씨 날아 댕기는 것만 잡으면 뭘해요? 땅 속으로 기여댕기는 걸 잡아야지

최씨 아니 무슨놈의 파리가 땅 속으로 기여 댕긴답디까? 나 원 살다살다 별소리 다 듣네

박씨 파리가 아니라 쥐 말이예요 쥐!

최씨 쥐요? 쥐를 왜 우리가 안잡아요? 잊그제두 강아지만 헌걸 잡았는데, 영순 어머니두 보시구서 그러시우?

박씨 흐! 한 마리! 댁엔 쥐가 득실득실해요!

최씨 (어이가 없는듯 웃고만 있다)

박씨 한 마리 잡으면 그만인가요?

최씨 왜요, 계속 잡아야죠, 그런데 댁에선 그래 몇 마리나 잡으셨나요?

박씨 아 우리 집에야 워낙 쥐가 없는데 잡긴 뭘 잡아요? 댁의 쥐가 우리 집에 번번히 침입해 와서는 이 모양을 해 놓는데 (돼지고기'덩이를 들어 보인다)

최씨 아니 그게 우리 집 쥐라구 머 표리표를 달구 댕기나요?

박씨 댁의 쥐가 틀림 없죠, 자 이 쥐 구멍을 보란 말예요! 어디서부터 뚫러 들어 왔나? 잊그젠 뚤뱅이루다 꽉 틀어 막았더니 이렇게 또 딴 구멍을…

최씨 원 별소리 다 듣네 아 쥐란 놈이야 하루'밤새에두 이집 저집으루 팔방 처 댕기는 동물인데 원 안헐 소릴 허시는군.

박씨 안헐 소리가 뭐예요? 아 전번엔 언젠가 대낮에 남의 천정으루 넘어 와서는 찍찍거리며 몰아치다간 남 잡자는 얼굴에다 오좀을 다…… (무의식적으로입을 닦는다)

최씨 그 쥐야 저쪽 천정에서 온거지 쥐가 뭐 우리 집 천정에서 살림사림 헌답디까?

박씨 그러니까 쥐가 우리 집으루 넘어 오지 못하게 허란 말이예요!

최씨 아 제가 넘어가지 누가 넘겨 보내나?

박씨 그럼 돼지고기가 이래두 좋단 말이요? (고기'덩일 흔들다가 내던진다.

최씨 아따 단단히 좀 건살 허죠?

△ 영호 등장 싸움이 멎는다.

영호 왜덜 그러십니까?

박최 ……

영호 무슨 일이 생겼나요?

최씨 (박을 보고) 얘길 하시우

박씨 날더러 왜요? 일 저지른 사람이 헐게지

최씨 아니 일을 누가 저질러요? 나 원 참!

영호 도대채 무슨 일입니까?

최씨 글쎄 원 참! 쥐가 이렇게 고길 먹었는데 그게 백죄 우리 집 쥐라구 생야단이 아니예요?

영호 쥐가요?

최씨 그럼이요 이 구멍으루 들어 왔으니까 우리 집 쥐라는 거죠

영호 네에 허허허 아니 왜 쥐약 노나 드린 건 다 어떡허셨나요?

최씨 쥐약두 놓구 쥐 창두 놨답니다. 인제 몽땅 잡아야죠

영호 아무렴은요, 몽땅 잡아얍니다. 쥐가 전염시키는 흑사병이란 건 정말 참 무섭습니다. 옛날에 저 영국에서는 이 흑사병으로 해서 아홉달 동안에 전 인구의 10분지 9가 사망됐다니까요

박씨 어유 저것 봐!

영호 그뿐인가요 쥐란 놈은 하루에 20g~70g씩 먹는데 가령 공화국에 500만마리가 있다고 하면 쥐 한 마리가 하루 평균 30g씩 먹는다해도 하루에 150톤의 쌀이 없어지고 1년이면 5만 5천톤의 쌀이 없어집니다.

게다가 번식률은 사람의 몇배나 더하구——(갑자기 안쪽을 보며) 아니 저기서 부스럭 대잖아요?

야 요놈 봐라! 저기 들어 있구나!

박씨 그놈이 저기 있구먼! 저게 바루 저댁 쥐야요

영호 가만 계십시요 (부지깽이 들고 살금살금 들어 간다)

(잠시 후) 요놈의 쥐! (때리는 소리)

박씨 왕이 그릇 조심 하세요!

영호 쥐를 때리지 왜 그릇을 때리겠습니까? (쥐꽁지를 들고 나온다)

박씨 왕이 잡으셨네,

영호 허허허 아 이렇게 잡으면 그만인걸 뭘 네 쥐 내 쥐하십니까?

최씨 참 쉽게는 잡으시네

영호 아 양캐놈들두 막 때려 잡았는데 요까짓 쥐새끼 하나 못 잡겠습니까 쥐를 잡으면 무서운 병도 예방되구 쥐 많이 잡았다구 성적 올라가구 일거 량득이죠.

박씨 (얼른 쥐를 빼앗으며) 이건 우리 쥐예요

최씨 아까는 우리 쥐라더니요?

영호 허허허 어쨌든 때려두 잡구 창으루두 잡구, 쥐약으로두 잡구, 고양이로두 잡구 해서 금년 중에 한 마리의 쥐두 남기지 맙시다. 허허허

조 명식 그림

—야단 났습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 났는데 적당한 곳을 좀 대주세요
—념려마시오 저집으로 가면 주인도 좋고 먹을 것도 많지요

락후한 사람이 받는 감사장

최 영근 그림

독자특고

제발 이러지 맙시다

중앙 제 2 건설 트레스트 2 사업소 송 철순 그림

남포시 마산리 27반 김 대권 그림

흥남 비료공장 도서실 김 태일 그림

오침 시간

5월 30일 한낮의 일이다. 선교—사동선 빠스 출발점에는 출퇴근 시간도 아니여서 교통이 비교적 한산한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늘어 섰다. 기다리는 차들은 계속 몰아 오건만 출발하는 차가 없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어쩌자고 차들을 세워만 두고 떠나지는 않을까?!》

《지금이 바루 오후 두시 사십분이라 오침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빠스도 오침을 하셔야 하는 모양이지!》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손님은 혀를 챈다.

《그러기에 교대 시간에는 아여 빠스를 타지 않군 했는데 오늘은 길이 바쁘기에 교대 시간인 줄 알면서도 나왔더니 또 이 모양이로군요.》

오전 교대의 운전수와 차장은 일을 끝낼 시간이 되였으니 움찍하지 않고 오후 교대의 운전수들과 차장들은 아직 나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빠스는 여섯대나 들이 밀렸다.

차 한 대가 와서 손님들을 태운다 그러나 역시 떠나지는 않는다. 운전수는 차에서 내려 저기 가서 기웃 여기 와서 기웃하고 산책을 하고 있다. 아직도 오후 교대의 운전수가 안나오셨다는 것이다.

《나두 퍽나 성미가 마른 사람인데 이 시각에 빠스를 타고 다니는 사이에 성미가 눅으러워 졌쉐다》

한 중년 남자의 말이다.

《그래도 성미가 그다지 마르지는 않은 편이기에 견디여 냈지, 성미가 아주 급한 사람이면 발이라도 날 것 같소》.

한 청년의 대'구다.

그러는 사이에 또 한 대의 빠스가 오고 오전 교대의 운전수는 단념한듯이 차에 올랐다. 삼십분만의 출발이다.

어느 한 운전수가 교대 시간에 늦어졌다면 그건 그 운전수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6~7대의 빠스가 모두 교대 때문에 제때에 떠나지를 못하는 것을 보고는 사업소 자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참아 보고 있을 수 없는 일

어느 한 사내는 빠스에 올라 앉기만 하면 눈을 감고는 자는지 조는지 자기가 내릴 정류장까지 끄떡도 않군 한다. 친구가 그 리유를 물엇더니……

《얘기 어머니들이나 늙은이들이 빠스'간에 서서 흔들리면서 가는 건 참아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지.》

코에도 좋았으면

극장과 영화관은 인민을 교양하는 학교다. 외성 영화관도 물론 그런 중책을 지니고 있다.

어느날 저녁 나는 정서적인 교양을 받기 위해 외성 영화관으로 갔었다.

그런데 이 영화관에서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일정한 《교양》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때마침 옆으로 지나 가는 한 남자에게 나는 말을 걸었다. 그가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말했다. 불행히 변소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탓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도 관중석인데 변소 냄새가 코를 찌르니 눈은 고랑진미와 같은 영화를 감상하는 사이에 코는 푸대접과 괄시를 받게 되여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내 마음이 유쾌해질지 불쾌해질지 분간하기 어렵노라고 여쭈었다.

그랬더니 그 사내는 대답하여 가로되

《모든 간난신고를 참고 견디고 이겨 나가는 주인공에 대한 이 영화를 보시고 돌아 가실 때는 두 시간쯤 참으신것도 유쾌하실거외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사시장철 일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가 될거외다》

참을성이란 점에서는 나도 이 영화관 일'군들에 대하여 경탄할만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참을성은 아무에게도 리로울 점은 없고 해로울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참을성에 대해서 경의를 표할 수는 없었다.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활 살 사 인쇄 1958. 7. 7 7—74370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8. 7. 10 값(50원)

8034
ХВАЛЬСАЛЬ СТРЕЛЯ

—보시는 바와 같이 철거하지
말라고 붙잡지 않습니까…

최 영근 그림